

충청남도 조례 제5392호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올바르게 기억하여
책무를 다하다”

대표발의 | 안장헌 의원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안녕하세요.
충남에 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2021년 삼일절에도
충남 금산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세워졌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된 분들이 780만 명에
이르고, 충남에 확인된 분들만
무려 9823명이고 2022년 기준으로
생존해 계신 분들은
131분이라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강제징용 피해자이셨어요.
아버지 생전에 끝까지 사과도 인정도 않는
일본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일본의 그 행태는 여전하고요.
그래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말 화가 나요!
어쩔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죠?

맞아요. 후손들도 잊지 않고
계속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충청남도의회가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는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대요.



네, 저도 들었어요.
보상보다 후대의 역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죠.

오늘 짧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어요. 청년으로서
앞으로 피해자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게요!

저희도 도울게요!

